정보

개요

곡명 : *Symphony No. 6 in D major, Op. 60, B. 112*

작곡가 : Antonín Dvořák (1841–1904)

작곡 시기 : 1880년 8월 27일 –10월 15일

최초 연주 : 1881년 3월 25일 , Prague에서 Filharmonie 오케스트라와 Adolf Čech의 지휘로 연주되었다 .

헌정 : Hans Richter

장르 : 관현악을 위한 4악장 교향곡

조성 ·길이 : D장조 , 약 40–43분

IMSLP: Symphony No.6, Op.60 (Dvořák, Antonín)

Wikipedia: Symphony No. 6 (Dvořák)

Antonín Dvořák의 *Symphony No. 6 in D major, Op. 60, B. 112*은 네 악장으로 구성된 교향곡이다 . 넓은 호흡의 `Allegro non tanto` , 노래하는 `Adagio` , 체코 춤곡 푸리안트를 바탕으로 한 `Scherzo. Furiant. Presto` , 활기찬 `Finale. Allegro con spirito` 가 이어진다 . 고전적 소나타 ·론도 형식과 Dvořák의 체코적 선율 ·리듬이 한 편성 안에서 균형을 이룬다 .

작곡과 초연

Dvořák는 1880년 8월 27일부터 10월 15일까지 이 교향곡을 썼다 . Vienna Philharmonic의 지휘자 Hans Richter가 작품을 의뢰했고 , Dvořák가 피아노로 초고를 들려주자 Richter가 크게 기뻐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 . 작곡가는 1880년 12월 26일 빈 초연을 기대했지만 , Vienna Philharmonic 단원들이 체코 작품을 연속해서 올리는 데 반대하면서 계획이 무산되었다 .

실제 초연은 1881년 3월 25일 Prague에서 Filharmonie 오케스트라와 Adolf Čech의 지휘로 열렸다 . 공식 Dvořák 자료는 청중의 환영이 뜨거웠고 3악장이 앙코르되었다고 기록한다 . Richter가 이 작품을 처음 지휘한 공연은 빈이 아니라 다음 시즌 London의 Philharmonic Society 연주회였다 . 위촉 , 예정된 빈 공연 , 실제 프라하 초연 , Richter의 후속 지휘는 서로 다른 사건으로 구분된다 .

출판과 번호의 역사

Berlin의 Simrock은 1881년에 이 곡을 인쇄했다. Dvořák의 교향곡 가운데 처음 출판된 작품이었기 때문에 초기 목록과 악보에서는 한동안 “제 1번 ”처럼 취급되었다 . 현재의 제 6번, Op. 60, B. 112라는 표기는 실제 작곡 순서와 후대의 Burghauser 목록을 반영한다. 번호의 변화는 작품이 다시 작곡되었다는 뜻이 아니라, 출판 시점과 작품 목록이 달랐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.

소요 시간

전곡은 약 40–43분이다. Dvořák 공식 작품 페이지는 약 43분으로 제시하고, 악단 자료는 약 40분으로 제시한다. 제시부 반복, 악장 사이의 호흡, 템포 선택에 따라 실제 연주 시간은 달라진다.

편성

피콜로와 다음 관현악을 사용한다.

목관: 플루트 2, 오보에 2, 클라리넷 2, 바순 2
금관: 호른 4, 트럼펫 2, 트롬본 3, 튜바
타악기: 팀파니
현악: 제 1·제 2바이올린, 비올라, 첼로, 더블베이스

피콜로는 높은 음역의 밝은 응답을 더하며, 목관과 금관은 춤 리듬과 피날레의 축적을 구체화한다 . 타악기는 팀파니만 명시되어 있고, 현악은 다섯 성부로 교향곡의 선율과 화성의 흐름을 이어 간다.

네 악장의 구성

I. Allegro non tanto

D장조 소나타 형식의 첫 악장은 넓고 온화한 주제를 목관과 현악에 펼친다. 3박 계열의 흐름 속에서 두 박과 세 박의 강세가 교차해 큰 악장에 유연한 추진력을 준다. Dvořák는 Prague 공연용 총보에 제시부 반복을
생략하라는 자필 지시를 남겼다. 같은 D장조와 비슷한 관현악 규모 때문에 Brahms의 제 2번 교향곡과
비교되지만 , 헤미올라와 선율의 억양은 Dvořák의 개성을 드러낸다.

II. Adagio

느린 악장은 짧은 분위기 서주 뒤 바이올린의 긴 선율로 중심을 잡는다. A–B–A–C–A–B–A에 가까운 자유로운
론도 성격 속에서 목관과 현악이 노래를 주고받고, 칸틸레나가 넓은 호흡으로 이어진다. 여름밤의 녹턴을 떠올리게 하는 이 악장은 3악장의 춤이 시작되기 전에 교향곡의 서정적 중심을 이룬다.

III. Scherzo. Furiant. Presto

푸리안트는 2박과 3박의 강세가 엇갈리는 체코 춤곡이다. Dvořák는 그 리듬을 스케르초의 빠른 주부와 느린 트리오 안에 배치해, 박자가 한 방향으로만 흐르지 않는 회전감을 만든다. 피콜로와 목관의 밝은 응답, 빠른 현악 음형, 트리오의 대비가 춤의 성격을 교향곡의 중심으로 끌어올린다 . Prague 초연에서 이 악장이 반복된 기록은 작품의 리듬이 당대 청중에게도 직접적으로 전달되었음을 보여 준다.

IV. Finale. Allegro con spirito

피날레는 D장조로 돌아오는 소나타 형식이다. 조용한 현악에서 시작한 재료가 바순과 고음 목관을 거쳐 전 관현악으로 넓어지고, 전개부에서 주제와 화성이 멀리 이동한다. 앞선 악장들의 목가적 선율과 춤의 에너지가 마지막 코다에 모이면서, 교향곡은 축제적인 음향으로 닫힌다.

Brahms와 체코적 리듬
이 교향곡은 Brahms의 제 2번과 D장조, 외곽 악장의 3박 흐름, 관현악 규모와 밝은 분위기를 공유한다. 그러나 Dvořák는 그 교향곡적 틀을 체코의 춤과 노래에 맞게 확장한다. 1악장의 헤미올라, 2악장의 긴 칸틸레나, 3악장의 푸리안트는 서로 다른 지역적 억양을 지니면서도 네 악장의 형식 안에서 자연스럽게 연결된다.

따라서 Brahms와의 관계는 단순한 모방보다 음악적 대화에 가깝다. Dvořák는 국제 관현악 무대에서 통용되는 소나타 ·론도 설계를 받아들이면서 , 강세의 어긋남과 선율의 굴곡을 통해 보헤미아의 말투를 들려준다. 피날레가 다시 D장조로 돌아올 때의 축제성도 이 두 요소가 합쳐진 결과다.

주요 자료

Symphony No. 6 in D major, Op. 60, B112 (Antonín Dvořák 공식 사이트)

Symphony No. 6 (Dvořák) (Los Angeles Philharmonic)

Dvořák Symphony No. 6 프로그램 노트 (Colorado Springs Philharmonic)

Dvořák 작품 안내 (Bärenreiter Praha)

Symphony No. 6 자료 (Bärenreiter Praha)

Antonín Dvořák 공식 체코어 작품 페이지

Revision #1
Created 2026-10-04 10:06:00 UTC by 안준영
Updated 2026-10-04 10:06:00 UTC by 안준영